



해양부 2006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든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10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일반시민, 정책평가위원, 업·단체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전국 바닷가가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으로 용도가 정해지는 '용도구역제(Zoning)'의 도입이 추진돼 환경·자원·행태 등에 따라 연안개발이 조정되고,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Landmark)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조형물을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양문화 창달이 가속화돼 바다가 한걸음 더 생활속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석이 추가 개장되고 광양항도 4선석이 추가 완공되는 등 동북아 물류허브화가 지속 추진된다.

해양부는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설치해 국민들의 해양의식 고취와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침이며 섬·등대 등 해양문화 공간을 국민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양문학, 미술전, 음악회 등 문화예술 이벤트를 활성화해 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22만평과 광양항 12만평의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울산/평택·아산항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마산, 목포 등 주

요 거점항만도 재정자립도 및 항만개발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이관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수산물 안정적으로 공급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 체질 강화 등 7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9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추진될 해양수산부 정책을 7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

해양부는 국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 공간인 연안, 독도, 무인도서, EEZ 등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을 환경, 자원, 이행행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용도구역제 도입을 올해부터 추진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08년부터 자연해안, 서식지가 손실될 경우 대체습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순손실(純損失) 방지제도를 도입해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독도 및 주변해역에 부존된 해양수산 자원 등에 대한 합리적이인 이용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독도 해양수산자원 연구를 전담할 연구기관을 지정한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에 독도박물관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무인도서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이용·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해 전국 무인도서를 유형별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남극연구 수행을 위해 오는 5월 중 남극연구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남극 대륙에 제2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남극자원 개발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전국 주요 항만에 랜드마크(Landmark) 기능을 수행할 조형물을 항만별 특성에 맞게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섬이나 등대도 국민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문화를 창달해 나갈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해 남해안 개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유치신청을 하고, 하반기부터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동·서·남해 권역별 마리나 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해양관광 조사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8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 쾌적한 해양환경 서비스 제공

육상에서 비롯되는 오염원으로부터 바다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갯벌, 해수욕장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에 '폐기물 해양투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투기허용 품목을 14종에서 11종으

로 줄이고 연간투기 허용량도 2011년에는 2004년의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역별 관리책임제가 시범도입된다.

해수욕장별로 수질 등급을 조사·평가해 7월 중에 공표하고, 20억원을 들여 동해안 해수욕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 또는 경관용 펜스로 대체한다. 유독성 해파리 출몰지역 등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부산신항 3선석 개장에 이어 올해 말까지 3선석이 추가 완공되고 광양항에도 4선석을 추가 완공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확충으로 동북아 물류허브화가 가속화된다. 또 올해 안에 부산항 신항(22만평)과 광양항(12만평)에 배후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등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미항으로 재개발하여 도시민의 문화·친수공간으로 제공한다.

해양부는 올해 안에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해 물류인프라 공동활용, 물류인력 상호교류 등 세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중·일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화물을 유치해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형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부산항과 인천항의 항운노조원에 대한 상용화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무선인식기술(RFID)의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미널 자동화 사업도 추진돼 항만물류의 생산성 제고도 가속화 된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산/평택·아산항 운영이 민영화되고, 마산/목포 등 주요 거점항만도 재정자립도 및 항만개발 완료시점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이관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톤세제 적용 선사 선정을 위한 국적선사 대상 '용선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 중 완료돼 희망업체의 선박제원·운항선박 신고 등이 전산시스템을 이용, 연간 운항톤수 확인 후 톤세 적격기업을 확인하게 된다.

3월부터는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안전화를

위해 수익보전형 선박펀드를 개발하고 선박운용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 국적선박 500여척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약 1000명의 외국인 선원이 추가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ILO) 통합 해사협약 채택이 맞춰 국내 비준 준비 등 제도정비도 추진된다.

부산 신항에 5,000TEU급 컨테이너선 첫 기항 MSC 신항에 주당 2척의 컨테이너선 정기기항

지난달 1월19일 개장한 부산항 신항에 마침내 정기선이 기항했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 MSC가 2월25일부터 신항에 주당 2척의 컨테이너선을 정기 기항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장 이후 물량 유체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신항이 조기 활성화되게 된 것은 물론 신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2월25일 신항에 첫 기항한 선박은 중국-부산-북미동안 항로를 운항해 온 MSC 리사(LISA·5048TEU급)호로 이 배는 이날 오전 10시에 접안, 20피트 컨테이너 800여개를 싣고 내렸다.

또 2월27일 오전에는 중국-부산-남미서안 항로를 운항하는 MSC 라라(LARA·2480TEU급)호가 접안, 컨테이너 600여개를 양적하한 뒤 멕시코 만자릴로항으로 떠났다.

MSC는 그동안 부산항 감만부두 대한통운터미널에 자사 선박을 주 5항차 기항시키면서 연간 60만개의 컨을 처리해 왔는데 이 가운데 2항차를 신항으로 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MSC는 올해 신항에서 20만-30만TEU를 처리한 뒤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내년부터 처리물량을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신항만(주)는 MSC외에도 2, 3개 선사와 신항 기항 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기항 선박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세계적 선사인 MSC가 기항함에 따라 신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BPA는 신항 개장을 계기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